

ECB의 금리인하 발표와 영향

□ ECB는 3.10일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, 양적완화(QE) 규모 확대 등 통화완화정책 패키지를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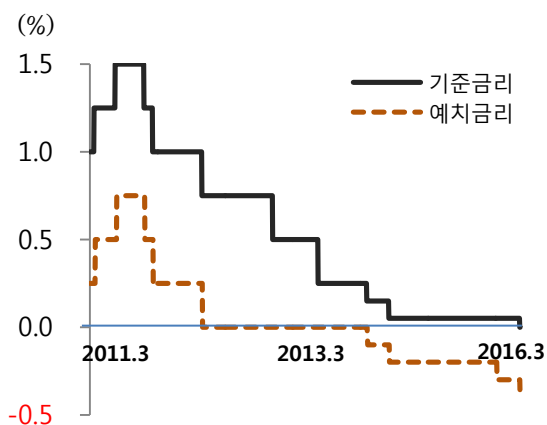
- 이와함께 유로지역 GDP성장률 전망치는 1.7%에서 1.4%로,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1.0%에서 0.1%로 하향 조정

- 기준금리 5bp(0.05%→0.00%), 예치금리 10bp(-0.30%→-0.40%) 인하
- 채권매입규모 월 200억유로 확대
(월 600억유로 → 월 800억유로, 비은행 회사채도 매입대상 채권에 포함)
- TLTRO2(4년만기)의 대출금리를 예치금리하한(-0.40%)으로 4회 실시

□ ECB의 정책결정 발표당일 금융시장은 매우 불안한 반응을 보였으나 익영업일(3.11일, 현지시간)에는 다소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 나타남

- 정책결정 발표직후에는 유로화 가치하락, 장기금리 하락, 주가상승 등 정책의도대로 금융시장이 반응
- 그러나 ECB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함에 따라 시장지표가 급속히 반대방향으로 변동(유로화 가치급등, 장기금리 상승, 주가급락)
- 한편 3.11일 다시 유로화 가치 및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

ECB정책금리 변화



자료 : Bloomberg

금융시장 변동 추이

구분	3월 9일	3월 10일		3월 11일
		발표직후	종가	
환율 (USD/EUR)	1.0999	1.0823 (-1.6)	1.1177 (1.6)	1.1156 (1.4)
채권 (독일 10년물)	0.2390	0.1565	0.3040	0.270
주가 (Euro Stoxx)	3016.2	3128.7 (3.7)	2970.8 (-1.5)	3073.8 (1.9)

주 : ()는 3월9일 종가 대비 변동률

자료 : Bloomberg

□ 이번 조치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엇갈리는 반응을 나타냄

- 기준금리 인하, 회사채 매입 및 마이너스금리 확대는 민간 및 정부부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기진작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
 - 특히 ECB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이 기대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고 TLTRO2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
 - * BNP Paribas, HSBC등은 TLTRO2 실시로 은행의 수익성 개선 및 신용공급 확대를 예상
-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엄청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마이너스금리로 인한 은행수익성 악화 가능성 등을 들어 경기진작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음
 - Credit Suisse는 예치금리가 25bp(0.25%p) 인하되면 은행의 주당순이익은 4%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

□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국내 경제상황 및 주요 선진국의 통화완화정책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

- 일본은행 및 ECB의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 실시,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상승 시기 연기 가능성으로 국내 금리인상 부담이 축소
 - * 국채 3년물과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2015.12.1일 0.314%p에서 2016.3.11일 0.045%p로 축소

□ 원화환율은 최근 미달러화와 신흥국 통화간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ECB조치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

담당 : 김민준 책임연구원
Tel. 051) 620-3191